



# 보 도 자 료



경 찰 청

서울경찰청  
SEOUL METROPOLITAN POLICE

보도	2023.9.5.(화) 14:00	배포	2023.9.5.(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이진아	(02-3145-8129)
			팀 장	김경환	(02-3145-8285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계	담당자	선 임	김유진	(02-3145-8526)
			조사역	신정원	(02-3145-8142)
	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과 수사3계	책임자	경 정	유지훈	(02-3150-2763)
		담당자	경 감	송한민	(02-3150-0881)
		책임자	경 정	이정동	(02-700-3640)
		담당자	경 사	김영우	(02-700-3667)

## 금융감독원·경찰청·서울특별시경찰청, 「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」 개최

-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효율적인 수사지원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-

### 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·경찰청·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\* 수사·단속 강화를 위해 「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개최

\* 불법사금융, 유사수신,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

-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·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
-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(본·지원)과 전국 시·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,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

#### < 서울특별시경찰청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3.9.5.(화) 14:00~15:00 / 서울경찰청 3층 수사회의실
- 참석자 : (금감원) 민생금융국장, 불법사금융대응1·2팀장 등  
(경찰청) 금융범죄수사계장  
(서울청 및 경찰서) 수사3계장, 강남경찰서, 서초경찰서, 관악경찰서
- 주요 논의내용 : 핫라인 구축, 불법사금융 피해상담·신고 및 수사 동향 등

## I 배 경

- 그간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·단속을 위한 공조\*는 금감원 본원 - 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나

\* '21.1월~'23.4월중 불법사금융·유사수신 등 불법혐의가 확인된 **1,391건**을 수사의뢰  
[( '21년) 731건, ( '22년) 495건, ( '23.1~4월) 165건]

- 기관간 협업과정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·도 경찰청(서) 및 각 지역소재 금감원 지원과의 수사 지원·협력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

-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·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, 「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」를 운영하는 등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사·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## II 주요 논의내용

- ① **(핫라인 구축)**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를 위해 금감원(본·지원)과 경찰청(본청 및 시·도경찰청) 불법사금융 담당조직간 핫라인(Hot-line)을 구축하였습니다.

※ (붙임 1) '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구성도' 참조

- ② **(상호 정보 교류)** 금감원·경찰청·서울경찰청은 '23.9.5일 14시 서울경찰청에서 「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개최하여

-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·신고 현황,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, 수사 또는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\* 및 수사·단속·피해예방 홍보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 ( '붙임 2' 참조)

\*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(금감원·경찰·지자체·금융보안원, '23.5월),  
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 편취 일당 검거사례(서울관악경찰서, '23.6월)

- ③ **(수사실무 FAQ 제공)** 금감원은 원활한 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실무를 위한 설명자료(FAQ)\*를 제공하였습니다.

\* 이자율 계산방법, 등록대부업체 확인방법, 유사수신 관련 최근판례 등

###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금감원(본원·지원)과 경찰청(본청, 시·도경찰청)간 협업 강화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불법사금융 수사·단속이 가능해져
  -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 및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금감원·경찰청은 주요 시·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·도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
  -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·단속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,
  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·교육을 전국 시·도 경찰청과 연계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.

**붙임 1**

**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 구성도**



## 붙임 2

##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협업 우수사례

### 1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(금융감독원·경찰·지자체·금융보안원, '23.5월)

- (개요)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,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청·경찰청·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 추진
- (점검결과)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①개인신용정보 불법 판매, ②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, ③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적발
  - 동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 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, 데이터 제공 내역,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

※ 세부내용은 “금융감독원·경기도청·경찰청·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(잠정)(’23.5.23. 배포)” 참조

### 2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 편취 일당 검거사례(서울관악경찰서, '23.6월)

- (개요) 서울관악경찰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하에 16개 시중은행에서 서민·취약계층을 지원하는 ‘햇살론’ 대출 상품을 1,513명에게 2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9.7억 원을 불법 수수한 총책 A씨 등 일당 24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(구속 5명)

이들 일당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 356명으로부터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, 그 대가로 7.8억 원을 수수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

서류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전화 1,568개 회선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62명으로부터 총 18.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